

삼성전스, 최대 실적에도 주가 뒷걸음… 외국인 매도에 발목

반도체주 피로감·HBM 경쟁력 우려
소재·부품·장비주로 순환매 확산
이달 외인 2조 매도… 수급 회복 관전

“반도체 투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만 사도 90점 이상은 한다.” 올해 국내 주식시장에선 이 말이 ‘정석’으로 통했다.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봐도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사뭇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된다. 역설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된 뒤부터다. 격정은 현실이 됐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107조4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전한 후 두 반도체 주가는 4거래일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다. 덕분에 12일 코스피는 6384.24(-3.65%)까지 밀려났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가의 반도체 연구원은 “시험 점수로 따지면 국내 메모리 ‘투톱’이 매 분기 100점에 가까운 성적표를 받아버리다 보니, 다음 분기에 만점을 받더라도 감흥이 덜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

그렇다면 ‘삼성전스’가 이끌고 있는 코스피가 ‘6천표’ (코스피 6000) 아래로 곤두박질치는 것은 아닐까.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를 이끄는 AI 혁명의 훈풍이 한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불어올 것으로 전망하면서 외국인 수급이나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3.65% 내린 6384.24에, 코스닥지수는 4.83% 내린 849.19으로 정규장 거래를 마쳤다. 정규장 마감시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직전 거래일 증가보다 7.7원 내린 1335.1원을 나타냈다. /뉴시스

◆반도체 주춤, 소부장은 날개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유가증권 시장 시가총액 1~100위로 구성된 코스피 대형주 지수 상승률은 -7.0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1~300위인 코스피 중형주 지수는 -1.97%, 301위 이하로 구성된 소형주 지수는 -0.90%의 수익률을 각각 기록했다.

대형주 지수 부진은 국내 시가총액 1~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조정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4일부터 이날까지 약 한 달간 삼성전자는 3.47%, SK하이닉스는 11.42% 하락했다.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 온 ‘빅테크·반도체’ 중심의 상승 피로감과 함께 반도체 업황 전망 및 고대역폭메모리(HBM)

M) 경쟁력에 대한 불안감의 여파로 분석된다.

더 큰 기대감과 감동을 찾아 헤매는 시장의 눈길은 자연스레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섹터로 향한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주성엔지니어링, 리노공업, 심텍, 원익IPS, 이오테크닉스 등이 모두 소부장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흐름을 대형주 중심 장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간 사이 중소형주 순환매가 확산되는 국면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복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외 주요 반도체 업체의 대대적 증설로 인해 2027년 장비 시장 전망치 역시 지속 상승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공정, 후공정 업체들 모두 투자 아이디어가 유효한 구간”

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증권가는 추격 매수보다는 금리 등 매크로 환경과 실적을 확인하며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금리 벤치마크인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는 5.3%를 넘나들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전스, 코스피 반등 이끌까

‘코스피 대장주’의 체면을 구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다시 반증할까.

JP모건은 아시아 증시에서 인공지능(AI) 관련주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장 흐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며, 한국과 대만 시장에 대한 비중 확대(Overweight) 의견을 유지했다. 한국과 대만 기술 기업의 실적은 거시경제 차원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으로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가계소득, 정부 재정수입, 은행 유동성 등에 과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AI 하드웨어 업종의 공급 부족이 적어도 2028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아시아 하드웨어 기업들이 물량 증가와 가격 결정력을 함께 확보할 수 있으며, 관련 생태계의 순이익은 2028년 1조달러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원 KB증권 리서치본부장은 “세계 최대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임에도 현재 주가수익비율(PER) 4배에 머물러 있는 상황은 극단적 저평가로, 밸류에이션 할인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삼성전자 HBM4는 D램(DRAM) 3사 가운데 가장 높은 가격 수준에서 연간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높아, 내년 1분기부터 평균 판매가격(ASP) 상승을 주도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문제는 수급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0월 들어 코스피에서 2조여치 순매도했다. 올해 누적액도 199조원으로 늘어났다. 2023년 11조원대 순매수, 지난해 4조원대 순매도와 비교하면 기록적인 매도세다. 순매도의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다. 이달 들어 두 종목에서 각각 1조7730억원, 11조5844억원어치 팔렸다. 5월부터 여섯달째 누적 순매도액은 각각 50조2718억원, 70조4815억원에 달한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인 46.35%까지 줄었다. SK하이닉스 역시 50% 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재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한국은 메모리 중심의 실적 성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반면 미국은 AI서비스와 인프라 전반에 걸쳐 주도주가 존재한다”며 “(두 국가는) 글로벌 AI 투자 확대의 수혜라는 공통점에도 기업별 수익구조와 밸류체인 내 위치는 상이하”고 밝혔다. 이어 “(이를) 한국 반도체의 경쟁력 약화로 해석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글로벌 자산배분 변화와 한국 반도체의 상대 밸류에이션, 향후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 차이 등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metro

방향 맞혀도 손실… ‘음의 복리’의 역습

개미 레버리지 투자 현황 보고서

삼성 15% 내릴 때 인버스 2배 -54%
레버리지도 주가 하락폭 3배 안팎 손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본 투자자 A씨가 삼성전자 단일종목 인버스 2배 상장지수펀드(ETF)에 1000만원을 넣었다. 예상은 적중했다. 이달 8일까지 삼성전자 주가는 14.7% 하락했다. 하지만 이 상품의 순자산가치(NAV)를 기준으로 A씨의 1000만원은 458만 원으로 쪼그라들었다.

방향을 맞췄는데 왜 잃었을까. 답은 ‘음(-)의 복리’에 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2X’의 NAV는 상장 첫날 증가 대비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일인 이달 8일까지 54.2% 줄었다. 같은 기간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선물지수는 16.1% 하락했다. 단순 계산으로는 30% 넘는 수익이 있어야 한다. ‘SOL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2X’도 선물지수가 27.0% 내리는 동안 NAV가 59.5% 감소했다.

상승에 베풀한 레버리지 상품은 손실이 더 컸다. 삼성전자 단일종목 레버리지 현물형 5종의 NAV는 46.6~48.4%, SK하이닉스 현물형 5종은 65.0~66.2% 줄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 주가는 30만7000원에서 26만2000원으로 14.7%, SK하이닉스는 224만3000원에서 168만1000원으로 25.1% 내렸다. 주가 하락폭의 3배 안팎에 이르는 손실이다.

음의 복리란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할수록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의 가치가 누



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 하락에 두 배로 베풀하는 단일종목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첫 날에 50~60%대의 손실을 냈다. /따능 AI로 생성한 이미지

적적으로 깎이는 현상이다. 이들 상품은 하루 수익률의 두 배를 매일 새로 맞추기 때문이다. 이호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지난 8월 발간한 ‘개인투자자의 레버리지 투자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지수가 20% 오른 뒤 20% 내리면 손실은 4%지만, 2배 레버리지 ETF의 손실은 16%로 벌어진다.

지난 1년 달은 이 효과가 극대화된 시기였다. 상장 이후 90거래일 중 주가가 하루 5% 넘게 움직인 날은 삼성전자 32일, SK하이닉스 35일이었다. 사흘에 한 번꼴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7월 28일 13.4% 빠졌다가 31일 26.8% 급등하기도 했다.

자금은 상장 초기에 몰렸다. 장근혁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6월 말 발간한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출시 전후 주식시장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출시 후 2주간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약 8조2000억원

어치 순매수했다. 레버리지 14종의 순자산은 6월 25일 17조3847억원에서 이달 8일 5조6959억원으로 67% 줄었다. 고점 이후 약 12조원이 줄어든 것이다. 순자산에는 유동성공급자(LP) 보유분과 주가 등락에 따른 평가액 변화가 함께 반영된다.

변동성은 실적 발표 이후에도 이어졌다. 삼성전자는 지난 8월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4000억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고 발표했지만, 이날 주가는 2.42% 내린 26만2000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도 2.44% 하락했다. 호재가 나오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는 ‘셀론(sell on)’이 나타났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같은 날 “실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자체는 낮아졌지만 시장에서 기대하던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멘텀을 개선 및 강화하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

삼성운용, 국민연금 인근 전주사무소 개소

삼성 운용 계열사 3곳 전주 집결

삼성자산운용이 전북 전주에 사무소를 열고 국민연금과의 현장 소통 강화에 나섰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 있는 전주에 자산운용사들의 거점 마련이 잇따르는 가운데 삼성자산운용도 현지 거점을 확보했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도 함께 입주해 전통 자산부터 대체자산까지 아우르는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삼성자산운용은 전북 전주에서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사무소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인근에 마련됐으며, 지난달 28일 사무실 조성을 마치고 이달 1일부터 현지 근무를 시작했다.

이날 열린 전주사무소 개소식에는 김우석 삼성자산운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하지원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대표이사, 김정근 삼성SRA자산운용 대표이사 등 삼성 운용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했다. 또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조지훈 전주시장, 윤희숙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등 지자체 핵심 관계자들이 모였다.

이번 전주사무소에는 삼성자산운용뿐 아니라 삼성액티브자산운용과 삼성SRA자산운용도 함께 입주했다. 각사의 전문성을 연결해 국민연금의 다양한 투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삼성자산운용이 주식·채권 등 전통자산 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액티브 투자와 대체투자 분야까지 협업 범위를 넓히는 구조다.

삼성자산운용은 전주사무소를 국민연

금과의 상시 소통을 강화하는 현장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지에서 고객의 투자 수요와 시장 변화를 파악하고 서울 본사의 운용·리서치·상품 조직과 연계해 대응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과의 실무 협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통자산과 대체자산을 아우르는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자산운용사들이 전주에 거점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국민연금은 올해 6월부터 국내 주식·채권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기금운용본부 소재지인 전주에 업무 거점을 둔 운용사에 1점의 가점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이후 국내 인프라와 사모투자 위탁운용사 선정에도 거점 여부를 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있다.

위탁운용사 선정 과정에서 가점 1점이 평가 결과를 가를 수 있는 만큼 운용사들의 전주 진출은 이어지는 추세다. KB자산운용과 한화자산운용, 신한자산운용, NH-Amundi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 등 여러 운용사가 전주에 사무소를 마련하거나 개소를 추진해 왔다. 삼성자산운용의 합류로 국내 주요 운용사들의 전주 거점 확보 움직임도 이어지게 됐다.

다만 사무소 개설이 실제 운용 인력과 투자 의사결정 기능의 이전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부분이다. 운용·리서치 등 핵심 인력이 서울에 집중된 업계 구조상 사무소 설치와 실질적인 업무 기능 이전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다.

/신하은 기자